

## 여호수아(7)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

### ■ 본문

수 14:6-12

### ■ 시작 찬송가

320장(통 350장)

### ■ 헌금 찬송가

347장(통 382장)

### ▶ 헤브론

-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면서 가게 된 땅, 제단을 쌓은 곳 (창 13:18)
- 사라가 장사된 곳 (창 23:2, 19)
-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거류했던 곳 (창 35:27, 37:14)
- 열두 정탐꾼이 정탐 중 확인했던 곳(민 13:23)
- 아낙 자손이 살던 곳 (민 13:22)
- 갈렙의 기업, 유다 지파의 땅 (수 14:14-15)
- 다윗 왕정 초기, 7년 6개월 동안의 중심지(삼하 2:11)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땅과 함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단순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사명과 그 땅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엇을 이루고, 어디에 가고,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85세의 갈렙

갈렙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한 후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선 갈렙은 자신의 나이를 85세라고 밝힙니다. 처음 믿음을 고백했던 그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되었지만 갈렙은 여전히 처음과 같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월이 흘러 늙어진 육신을 입고서도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갈렙에게는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 (1) 다른 것을 보게 하는 사명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눈에 보인 대로 가나안 땅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눈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인 땅은 가나안 민족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민 13: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게 하셨을 때 사명으로 그 일을 받았습니.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선포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민 14:6-8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므로 사명이 있는 우리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의 눈에 교회는 그저 사람이 모인 건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망을 잔뜩 담아 교회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 (2) 강건하게 하는 사명

갈렙에게 주어진 헤브론이라는 땅은 결코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해안가에 더 풍요롭고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인족 네피림이 바로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으니 얼마나 어려운 상대였겠습니까? 갈렙이 40세에 이 땅을 정탐했을 때는 이들을 모두 떨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자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민 13:22    또 네겟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칠 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 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새와 달매가 있었더라

그리고 45년이 흐른 지금, 갈렙은 85세의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이 강건하다고 말합니다.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85세의 몸이 40세의 몸과 같겠습니까? 갈렙은 그가 정말로 그때와 똑같이 강건하였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그를 강건하게 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수 14:10-11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사십오 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팔십오 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 사명을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힘을 주십니다.

### (3) 꿈을 꾸게 하는 사명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그 땅을 차지하는 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채우며 살아가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유명한 이 선포는 사명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꿈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 14:12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사명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명을 갖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평생 사명을 놓지 않고 꿈을 꾸어온 갈렙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헤브론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이 그치는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수 14:13-15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트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또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 12:11).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도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갈렙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으로 세상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며, 더욱 강하여지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 ‘진멸하라’

사명이 아니었다면 갈렙은 그 땅에 거주하던 민족과 타협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상과 인신제사의 문화로 가득한 그 땅의 민족과 더불어 살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기에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어려운 전쟁을 이어가야 했다.

### ▶ ‘기업이란?’

-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약속 (창 17:8, 출 6:8)
-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것 (레 20:24)
-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 (민 18:20, 시 16:5-6)
-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단 12:13)
-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구원의 약속(갈 3:18, 4:1, 엡 1:14, 벧전 3:9, 히 6:12)
- 하나님의 나라 (갈 5:21, 엡 5:5)

### ▶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

- 행 20:24
- 롬 12:11
- 빌 3:14

### 오늘의 한마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